

합격기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끝까지 버티기



이 계 진

- 서울 화곡고등학교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처음 고시계에서 합격수기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54회 합격생이라 합격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지난 수험생활을 되 돌아봐도 모범적인 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아 ‘과연 도움이 되는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친한 연수생들이 분명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해 주어서 원고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합니다. 1차 공부를 한지 오래되기도 했고, 1차 합격기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의 수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 저는 2차 수험생활과 답안지 작성을 중심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I. 2차 수험생활

1. 아침부터 공부를 해야한다?!

저는 아침잠이 정말 많은 편이었는데, 수험기간동안 ‘시험은 오전부터 있으니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생활패턴을 고쳐보려고 수차례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결국, 오전에는 아예 공부를 포기하고 오후 1~2시쯤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밤

과 새벽시간을 공부시간으로 주로 이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부터 독서실 닫는 시간까지, 그 후부터 새벽 2시까지 컴퓨터도 하고 야식도 먹는 등 잠시 쉰 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새벽 4~5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밤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언제” 공부를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대체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하는걸까?!

합격하고 나서 수험생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대체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가?” 이었습니다. 저는 잠은 충분히(8~10시간 이상) 자고 공부를 한 편이라, 스톱워치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예비순환 때 4~5시간(강의시간포함), 1순환 때는 6~7시간(강의시간포함), 2순환 때는 7시간(시험시간포함), 3순환 이후부터는 5~6시간 정도(시험시간포함)를 한 것 같습니다. 아는 형, 누나들과 만나서 커피숍에서 푸념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잠도 충분히 자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느라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고, 3순환

이후부터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공부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부시간이 남들보다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부시간이 적은 분들이 스스로를 합리화 하는 기준으로, 또는 역으로 공부시간이 많은 분들이 자만해서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건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저는 “얼마나 집중해서”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더 합격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부시간이 많더라도 책상에 앉아서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카톡, 웹툰, 인터넷 검색 등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공부시간이 적더라도 그 시간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에 비해 양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하고 싶은 것 참기?!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먼저 합격한 형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좋아하는 것 하나를 아예 금하고, 그 다음 좋아하는 것 하나를 극히 제한할 수 있으면 일찍 합격할 수 있다.”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제 의지만으로 그걸 중

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수험기간동안 정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알림등으로 찾아오는 것도 차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나가고 싶을 때에도 연락할 수단이 공중전화 밖에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가는 횟수가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들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를 넘어서서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웹툰을 보면서, 누군가는 스포츠를 보면서, 누군가는 만화책을 보면서, 누군가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하에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수험기간 동안에만 스스로 자제, 아니라면 강제적으로라도 참으시길 권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사법시험 합격'은 더욱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Ⅲ. 답안지 작성 Tip.

1. 서설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채점자는 우리가 쓴 답안지만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답안지에 현출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지식들은 평가의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차 수험기간 동안 계속해서 답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 제가 생각하는 답안지 작성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거나, Tip이라고 생각 되는 점을 작년에 연수원 유예를 하면서 2차 답안지 첨삭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답안 작성을 꼭 하자

저는 2~3순환 때 수업이나 강평은 듣지 않고 only 모의고사만 응시했었습니다. 2순환 때는 교회 수련회 때문에 한번, 3순환 형법, 헌법 때는 2순환과 달리 쉬는 날이 없어 자체적으로 각 1번씩 응시하지 않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시험에 모두 응시했습니다. 가끔 너무 문제가 어렵거나, 시험이 보기 싫을 때에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가지고 나와 독서실에 가서 쓸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지만, 한번도 실제로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도 결국 안 쓰게 될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게 한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답안 작성을 더 하지 않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쟁점이 나오더라도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지어 서라도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책은 아예 들고 가지 않았고 오로지 법전과 팬만을 들고 갔습니다. 결국 시험장에 가도 아는 쟁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타도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든 모르는 쟁점을 써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합격한 이후에 종종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답안작성 안하고도 붙는 사람 있던데, 꼭 답안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 좀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였습니다. 물론 답안 작성을 아예 안하고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답안작성을 적게하고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답안 작성을 권હે드리는 이유가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좋아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지식을 얻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연 공부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쟁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놓지 않게 되기 때문에 ‘답안작성 한번이라도 빠지면 안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꾸준히 작성을 하시길 권합니다. 더욱이 주변에서도 3순환에 들어서면서 더욱 짧아진 일정, 늘어난 진도에 허덕이고, 답안지도 잘

못쓴다고 스스로 생각하다보니 더 쓰기가 싫어지고, 학원에서 쓰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된다는 이유로 자꾸 문제와 답만 가지고 오고는 실제로 작성을 안하고, 그렇게 한 과목 두 과목 답안작성을 하지 않다가 결국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사례를 읽어 나가면서 계속해서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출제자는 사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쟁점들을 엮어서 문제를 구성할지를 고민 할 것이고, 그 쟁점들을 수험생으로 하여금 찾아내도록 사례를 만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사례에 어떤 ‘힌트’ 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쟁점을 추출하고 답안지에 적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힌트들은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쟁점과 중된 쟁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사안포섭의 기초가 되며, 학설·판례의 대립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도, 반드시 답안지에서 언급해야 할 것들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주된 쟁점과 종된 쟁점을 구분해보자

보통 10점, 15점 배점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써야할 내용을 다 쓴다면 족히 20~25점 분량이 넘을 정도로 쟁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동안 쓸 수 있는 글자 수, 답안지의 면수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과연 어느 쟁점을 답안지에 어느정도 쓸 것 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례에서 주된 쟁점이 무엇이고, 종된 쟁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해 내야 각 부분에 정해져 있는 배점을 균일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수험생이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된 쟁점과 종된 쟁점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학설·판례의 대립의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학설·판례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사례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언급해야하는 논점이기는 하겠지만, 학설·판례·검토를 길게 써야할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 학설·판례 중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안의 결론이 달라진다면 그 부분의 쟁점

은 주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된 쟁점과 종된 쟁점을 구분했다면, 주된 쟁점이라고 판단하게 된 사실관계 또는 문구를 반드시 문제의 소재에서 언급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사안에서 ~한 점을 볼 때 ~점이 문제된다.”라는 식으로, 길게는 “사안에서 ~한 점에 비추어, ~볼 것인지, ~볼 것인지 견해가 대립하므로 이를 살펴본다.”라는 식으로 언급한다면, 채점자의 입장에서는 아래 내용일 읽기 전에 이미 이 수험생이 학설, 판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 또는 문구는 사안포섭에서도 반드시 언급해서, 내가 검토한 그 학설 또는 판례에 의할 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주된 쟁점과 종된 쟁점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공부할 때부터 학설·판례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며, 대체 학설과 판례가 왜 대립하는지를 고민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조문이 없다면지, 조문의 해

석과 관련해서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르게 해석할 것인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형사소송법에서는 실제진실과 적정절차) 사이에서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설·판례의 내용도 정확하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례에서 그 학설·판례 사이의 대립의 실익이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쟁점이 주된 것인지 아니면 종된 것에 불과한지를 구분하고, 얼마만큼 자세히 또는 간단히 언급할 것인지 까지 미리 판단을 한 후에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5. 사안포섭을 충실하게 하자

답안을 읽다가 학설·판례·검토까지 잘 쓰고도 사안포섭 없이 곧바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아니면 검토에서 쓴 논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며 추상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은 사례에서 살살이 찾아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논리적이고도 제대로 된 사안포섭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쟁점을

도출하도록 출제자가 준 힌트들은 반드시 사안포섭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안에서 갑이 ~~한 점, 갑과 을은 ~관계인 점, 당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있었으므로 을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악의인 점) 등을 살펴볼 때 ~~~~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하다.” 라는 식으로 주어진 단어,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포섭하는 것 말입니다.

6. 조문을 빠짐없이 적자

수험기간동안 읽었던 많은 합격수기에서 “조문을 잘 적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출제교수님들의 채점평에서도 “왜 조문을 안 적는지 모르겠다.” “법학을 하는 사람이 대체 왜 조문을 적지 않고 답안작성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조문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 수험생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조문을 몰라서 적지 않았다기보다는 조문 위치는 알지만 법전에서 찾아서 적기에는 시험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고, 모의고사를 치면서 조문을 적는 습관을 들이지 않아서 순간 깜빡하고 넘어가는 것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안지 채점을 하다보니 왜 교수님들이, 합격생들이 그렇게

한 목소리로 조문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 조문들을 적으면 적을수록 조문을 충실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에 답안지의 인상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그 쟁점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조문이 빠져있으면 답안지의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조문을 언급한 답안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답안에 같은 점수를 부여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공부하실 때 조문을 찾아보시면서 조문의 내용, 그 조문이 들어오게 된 취지, 조문의 해석론 등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실 뿐 아니라, 모의고사 등을 볼 때 항상 신경을 쓰면서, 조문 하나 더 언급할 때마다 1점씩 더 받는다는 생각으로 습관적으로 관련 조문을 적도록 연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문적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가급적 조문을 괄호 안에 적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도 좋지만, 그래도 괄호 안에 조문을 적어 놓으면 채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눈에도 잘 띄고, 조문을 충실히 적시하고 있다고 느껴져 답안지 전체의 인상이 좋아지게 되며, 또한 혹시나 교수님께서 못 읽고 지나가실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V. 마치며

실력도 부족하고, 남들만큼 성실하게 수험생활을 해내지도 못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지만, 그냥 단순히 ‘아. 이렇게 수험생활을 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방법 내지 팁들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정답도 아니고, 합격생들 개개인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수험생활도 공부시간도 다 다르기에 이 글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만 취하시는 정도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시계 전병주 국장님, 수험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아빠, 엄마, 누나, 승운, 영도, 스터디원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도 2차 합격자 발표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계실 장우형, 수연누나, 지혜누나에게도 이번 10월이 평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모두 사법시험이라는 힘든 산을 넘어서 사법연수원에서, 더 나아가 실무에서 뵈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기대하며 저 또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 되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